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

왕과 신하가 다르고, 부귀와 빈천이 다르고,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 그러나 중생과 범부는 같고 부처와 성인이 같고 원숭이와 개는 비슷한 무리이다. 이것이 이(異)와 유(類)의 의미이다. <조주록>에는 다른 것과 비슷한 무리에 대한 남전 스님과의 선문답이 나온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다른 것(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까만, 비슷한 것(類)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은 두 손으로 땅을 치고 기어가는 자세를 취했다. 조주 스님은 그런 남전 스님을 바로 밟아서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열반당에 돌아가서도 계속 “후회가 돼, 후회가 돼”하고 외쳤다. 남전 스님은 그것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다.
“도대체 무엇이 후회가 된다는 말인가?”
“덤으로 한 번 더 밟아버리지 버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師問南泉 異即不問 如何是類 泉以兩手托地 師便踏倒 卻歸涅槃堂內叫 悔悔 南泉乃令人去問 悔箇什麼 師云 悔不剩與兩踏

조주 스님이 “무엇이 비슷한 무리(類)냐”고 묻은 것에 대해 남전 스님은 두 팔과 두 다리로 땅을 짚고 걷는 자세를 취해 4개의 팔과 다리가 비슷한 무리(類)임을 보였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였으므로 틀린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스승의 답이 못마땅하다는 듯 남전 스님을 바로 밟아 넘어뜨리고 승당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 번 더 밟아 버리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쉽다고 토로했다.

조주 스님이 기대했던 유(類)는 과연 무엇일까? 중생과 부처가 원래 없고, 부귀와 빈천도 원래 없고, 늙어남도 젊어남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것이 유(類)일까? 이것을 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쩌겠든 남자라면 조주 스님의 유(類)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전 스님처럼 하지 않고 “발은 있는데 발자국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전 스님이 욕실 안을 지나다가 욕두(浴頭 : 목욕탕 관리 소임)가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남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욕두 “목욕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남전 “있지 말고 수고우(牛)를 불러다 목욕시켜라.”
욕두 “네.”
밤이 되자 욕두가 방장실로 들어왔다.

발은 있는데 발자국은 없다

남전 “무엇 하러 왔느냐?”
욕두 “수고우께서 어서 욕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남전 “소고삐는 가지고 왔느냐?”
욕두는 대답이 없었다. 조주 스님이 저녁 문안차 들리자,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에게 앞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주 스님이 말하길,
“제게 한 마디 말(語)이 있습니다.”
그러자, 남전이 물었다.
“소고삐는 가지고 왔느냐?”
조주 스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재빨리 코를 잡아 끌었다.
남전 “좋기는 좋지만 너무 난폭하구나.”

南泉從浴室裡過 見浴頭燒火 問云 作什麼 云燒浴 泉云 記取來喚水枯牛 浴頭應諾 至晚問浴頭 入方丈 泉問 作什麼 云請水枯牛去 浴 泉云 將得繩 索來不 浴頭無對 師來問訊 泉 泉舉似師 師云 某甲有語 泉便云 還將得繩索來麼 師便近前 鼻便拽 泉云 是即是太蠢生

확신이 맞다면 소고삐도 확실히 내보여야 선도에 깊은 정점 깨달으면 전체가 보인다

수고우는 일하는 소를 말한다. 잊지 말고 수고우를 목욕시키라는 남전 스님의 말씀에, 욕두는 사원에서 남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는 곧 방장 스님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장실로 찾아가서 남전 스님에게 “수고우께서 어서 욕실로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까지는 나름대로 대범한 선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남전 스님이 “소고삐를 가져왔느냐”고 묻는 것에는 더 이상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욕두처럼 어떤 문제를 알음알이로 풀면 조금만 다른 물음이 있어도 막막해진다. 이는 선사가 비슷한 것을 갖고 방향만 약간 틀어서 물었을 때 욕두가 전혀 대답하지 못하게 된 것과 같다. 그래서 알음알이로 안 것이 아닌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선도(禪道)에 대한 깊은 정점을 깨달으면 전체가 보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마치 고봉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듯 모든 것이 선명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선지식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게 된다.

조주 스님은 소고삐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 즉시 앞으로 다가가서 코를 잡아끌면서 욕실로 가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 행동은 비록 거칠었지만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선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선문답에서는 수고우가 방장 스님입이

맞다고 확신했다면 방장 스님을 욕실로 인도할 수 있는 소고삐도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다.

그런데 수고우를 욕실로 가게 하는 소고삐를 조주 스님은 거칠게 보였지만, 소고삐가 반드시 이렇게 거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거칠지 않은 소고삐는 어떤 것일까? 만일 욕두가 “수고우도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남전 스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4구(四句)를 떠나고 백비(百非)를 끊은 경지에 대해서 노스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남전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조주 스님은 말했다.
“이 노스님은 평소에는 말을 잘 하는 편인데도 일단 물어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시자가 말했다.
“노스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주 스님은 시자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師問南泉 離四句絕百非 外 講師道 泉便歸方丈 師云 這老和尚每常口吧吧地 及其問著一言不措 侍者云 莫道和尚無語好 師便打一掌

사구백비(四句百非)는 일체 사비논란을 부정하는 말이다. 근본 자리는 그 무슨 말이나 사유도 감히 붙일 수 없으므로 100번을 부정해 들어가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때 사구백비라는 말을 쓴다.

사구백비조차 끊어낸 경지에 대하여 남전 스님은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야말로 사구백비를 끊어낸 행동이다. 선은 이렇게 간결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답한다. 그러나 조주는 마땅치 않았다. “꼭 이렇게 말이 없어야 하겠느냐”면서 혼자 투덜댔다.
조주 스님의 이 투덜거림을 눈 여겨봐야 한다. 조주 스님의 투덜거림은 또한 백비를 벗어난 것이다. 남전 스님의 저러한 행동도 결코 백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비를 벗어난 경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시자는 남전 스님을 두둔하고 나섰다. 남전 스님의 행동을 긍정하면 안 된다. 긍정하면 백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시자에게 일장(一掌)을 날렸다.

그런데 백비를 벗어난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 이 남자에게 묻는다면 “사깃물이 많으면 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9

욕심 없애야 모든게 깨끗하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여 지면 중생들의 마음이 모두 깨끗하여 지느니라.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진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불국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곧바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한 것이니라. 삼독의 마음을 누를 수 있으면 삼취정계를 자연히 성취하리라.”

[원문]

若自心淨 一切衆生 皆悉清淨 故經云 心垢即衆生垢 心淨即衆生淨 又云 欲淨佛土 先淨其心 隨其心淨則佛土淨 若能制得三種毒心 三聚淨戒 自能成就.

[해설]

경전에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들의 마음이 모두 깨끗해 지느니라”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서 탐·진·치 삼독이 끊어지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을 써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욕심을 없애야 되겠지요. 인간들은 욕심으로 인해 괴로움의 고리에 그달려 삽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 돌아보면 삶은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욕심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은 1초에 99억 번 진동합니다. 지구도 1초에 37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초 전과 1초 후의 세상이 같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 성현의 눈으로 보면 물질의 세계는 모두 텅 비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물질 역시 마음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과 네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양 착각하고 사는 세계를 중생·고통·괴로움의 세계라고 합니다. 실상을 바로 보기 전에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면 자신과 가정·세상을 맑게 만듭니다.

정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나 다 마음으로 돼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으니까 좋고 나쁜 것이 끊어져서 미워할 대상

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할 때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차고 여러적이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자신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깨끗해집니다.

때문에 경전에서 “불국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곧바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중생의 마음이 깨끗해져 삼독의 마음을 누를 수 있을 때 삼취정계를 저절로 성취하게 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끊으려면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해야 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할 때 삼독심을 누를 수 있고, 삼취정계를 자연히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벗어나면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진해야만 삼취정계의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삼취정계는 섭음의계(攝儀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를 포함한 대승 보살의 계법입니다. 대승·소승의 온갖 것이 없어 섭(攝)이라 하고,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해 정(淨)이라고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이 북한의 주술에 휘둘러서야 되겠는가?

대한불교조계종 대표단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2월1일 평양 합의사항에 대하여 무지(無智)와 우행(愚行)에 경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남북불교도 대표들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방향을 합의 하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는 것이다.

-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합의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 조계종단이 국가와 국민과 불교도들의 뜻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역할 권리가 없으므로 본 합의는 성립될 수 없다.

둘째, 금강산 신계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도선사의 108산사 순례단 4~5천명이 3월에 신계사를 순례하겠다는 것이다.

- 우리조계종이 지원하여 복원된 신계사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북한에 불교도가 없기 때문이다.
- 남북 정부간 미합의 상태에서 정부는 순수한 도선사 순례자들을 국민의 배신자로 만들지 않도록 순례신청을 반려하라!

셋째, 우리불교계가 경쟁적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퍼주기식교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 종교도 없는 북한의 노동당 위장단체인 조불련은 우리불교계를 공산통일과 외화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구이다.
- 한국대표 불교종단이 호국불교가 아니라 망국불교라는 국민의 비난을 엄중하게 받아드려 참회해야 한다.

[합의사항 / 논의사업 전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협력에 기여해야”

남측 대한불교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조계종과 조불련 간 합의사항 -

1. 양측은 우리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하여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 양측은 2011년 8만대장경 목판제작 1000년을 맞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3.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 조계종과 조불련 간 논의된 사업 -

1.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 평양시내에 불교회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3. 남측사찰과 북측 주요사찰간의 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한다.
4.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에 평양 광범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 하도록 노력한다.
5.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맞이하여 금강산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또는 남측과 북측사찰에서 동시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6. 남북불교단체와 조불련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0. 2. 18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희도

참여단체 :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유시민연대, 해외참전전우회, 상이용사불자회